

# 精油社의 會計處理 統一化에 關한 小考

鄭 鉉 澤

(京仁에너지·業務部代理)

이 글은 짧은 기간이나마 본인이 정유사의 會計업무와 油價관련業務를 다루면서 느낀 短見을 다만 나름대로 披瀝한 것이며, 深奧하고 精緻한 學問적 체계를 研究·記述한 것이 아님을 양해바랍니다. <筆者註>

## I. 精油會計의 統一化의 필요성

(1) **動** 資部가 석유사업법 제15조에 따라 石油價格을 통제하고 그 價格算定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각 정유사의 決算자료와 또는 필요참고자료를 분석, 활용하는 바 이때 제출되는 各社의 財務諸表, 특히 損益計算書上 분류되는 計定科目과 各종會計處理방법이 상이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비용이나 수익이 各社의 處理規定에 따라 서로 다르게 分類·집계됨으로써 正유 5社 全体를 合算 또는 分析對比 할 때 많은 時間과 노력이 낭비된다.

(2) 1982년도의 5社年間売出額이 6조원이 넘었고 同年 GNP對比 약 12.6%를 차지하는 重要산업으로서 企業會計기준(1981. 12. 23 財務部 承認)에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正유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함이 필요한 사항을 正유업계의 통일案으로 하여 연구·채택 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되어지며, (基準第131案, 業種別 회계처리 기준) 비록 美國에서도 正유산업 회계처리 기준이 아직 없지만「註1」 우리의 실정에 맞게 연구·채택함으로써 關係當局과의 해석상 마찰 등을 많이 줄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正유사의 재정, 경영상태를 외부에 발표할 때 통일된 회계기준이(또는 Uniform Practice라도) 있음으로써 더욱 신뢰성과 健全性을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然

設業界는 83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그들 고유의 처리기준을 채택했다고 한다.

「註1」: 美國은 FASB에서 Oil and Gas Producing Activities에 관한 기준(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만 발표하였음.

## II. 精油社의 회계처리 相異現況과 問題点 분석

### 1. 재고평가방법의 相異 - Crude, Inventory, Warehouse Stock (Spare Parts) 및 用品

원유 및 제품은 先人先出法(FIFO)과 後人先出法(LIFO)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재고수준이 크고 向後 민간 비축량이 증대될시는 채택방법의 변경에 따라 Inventory Valuation의 증감차가 막대함으로써 손익상, 자산평가상 많은 技巧와 喜悲가 초래될 것이다.

저장품(Warehouse Stock)의 평가방법도 총평균법, 移動率平均法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회사에 따라서는 웬만한 Spare Parts나 用品 등은 재고용이든 아니면 즉시 사용하든 관계없이 구입시 아예 費用處理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2) 각 방법의 장단점이 있고, 사별 특성과 필요에  
 문에 달리 채택할 수도 있지만, 本稿가 統一案을 의  
 도코자 하므로, 원유/재고의 평가방법은 재무구조  
 의 健全性を 이유로해서 後入先出法(LIFO)이 설  
 득력이 있으리라 본다 (재고로 남은 Layers는 대  
 개 저가로 평가). 여기에도 Monthly LIFO나,  
 Annual LIFO나가 양분되지만, Crude Purchase  
 Cost가 급격히 변동되지 않는 한 이것까지는 통일  
 화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유사 공  
 통의 절박한 과제, 즉 脱黃시설, 重質油 분해시설,  
 老朽시설개체, 가스化시설, 기타 綜合에너지 산업  
 에로의 전환에 막대한 투자 수요가 필요하고, 精油  
 산업의 Life cycle은 원유의 可採量계약으로 그렇  
 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健全化는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저장품과 用品의 처리방법도 금액면에서는 그리  
 큰 비중은 아니지만, 특정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Warehouse Stock은 이동평균법,  
 용품은 재고처리후 실사용시 비용처리).

## 2. 製品別 제조原價의 계산방법 통일

(1) 국내 정유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제  
 품 販賣價에 의한 製造原價 할당법이다. 즉 일정기  
 간의 제품별 생산량과 제조원가 총액을 먼저 산출  
 해 놓고 당해기간의 단위당제품판매가격과(告示價)  
 생산수량의 積數를 구하고 제품별 적수의 構成比率  
 을 구한 후 그 비율에 따라 총원가를 제품별로 할  
 당(Allocation)하는 방법이다. 美國의 정유사에서  
 도 이 방법을 많이 채택하는 경향이며, 참고로 인  
 용하면, Allocated on Basis of relative Sales  
 Value, The Sale Value of Products Requir-  
 ing Further Processing, Treating and so  
 on,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Current  
 Sales Value of Finished Products Estimated  
 to be derived therefrom-이하생략-라고 하  
 면서 산출방식을 例示하면 :

Illustration of Cost Center Allocations to

| Products Yield    | Products Production Bbls |
|-------------------|--------------------------|
| (A)               | (B)                      |
| Realization Value |                          |

$$\text{Per Bbl(C)} \frac{\text{Total(D)}}{(\text{B} \times \text{C})} \text{Distribution Ratio(D)}$$


---


$$\frac{\text{Manufacturing Cost}}{(\text{Total cost} \times \text{D} \times \text{B})}$$

註 : Encyclopedia of Accounting System Vol.3

이 방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통제 체  
 제에서 경유, 나프타, B-C油 등 산업정책적 또는  
 민생안정을 위한 배려로 低價策定되는 유종과,  
 반대로 고가정책되는 유종에 할당되는 제조원가는  
 실원가와 많은 乖離가 발생하게 되는 모순이 생긴  
 다.

(2) 제조공정별 원가계산-제품별 實제조 코스트  
 를 정확히 산출하고, 국내외 價格差를 대비하여, 에  
 너지별 상대가격을 분석기 위해서는 Refining  
 (Cracking) Process Chart에 의하여 원가계산  
 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너무도 어렵고  
 복잡해 아직 개발·정립된 Method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제품별 제조원가계산 방법의 통일案을 위하  
 여 정유사, 회계전문가, 기타관계전문가와 共同  
 연구로 통일案(Provision)을 작성해야 한다. 우리  
 가 「特定유종의 국내제조원가가 정확히 얼마다」라  
 고 자신있게 제시할 수 있는 Ready Informations  
 나 연구보고서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恥部다 (물론 유종별 구분이 없이  
 總額面에서는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만). 위의 제조  
 원가 할당방법에서 도출된 원가가 時價주의나, 低  
 價주의(Average Current Cost or Lower  
 Recoverable Cost)나 채택방법에 따라서 재  
 무제표상 큰 계수차가 생긴다. 이것도 통일化의 대  
 상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3. 減價償却法

(1) 국내정유사는 定額法(Straight Line Meth-  
 od) 또는 定率法(Reducing Balance Method)을  
 쓰고 있다. 관계 文献이나 외국의 例를 봐도 이것  
 이 Recommendable Method라고 할 것은 없다.  
 다만 美國에서는 石油과 가스 탐사개발법에는 Unit  
 of Production Method(生産단위 比例法?) 를  
 FASB에서 규정할 뿐이고, 일반적으로 정유사는

정액법이 널리 通用되는 모양이다.

(2) 固定資産의 減價는 3種에 따라서 時間의 經過에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利用의 多少에 따라야 하느냐에 따라 採擇方法이 달라지게 된다. 正유사 고정 資産의 運轉실정이나 耐用年數를 봐서 事業初期에 과도하게 비용처리되는 正율법보다는 使用기간중 均衡히 생각되는 正액법이 타당하리라 본다. 그 이유는 經驗적으로 봐서 正유사의 事業초기는 正부고시가격체제, 수요물량의 價格非彈力性, 高액의 金용비부담, 원유시장의 價格불확실성, 환율문제 등 正유사 失策으로는 볼 수 없는 變수로 因해서 大 結算이 나기 마련이다. 또 正유사의 이익 배당문제, 차관先에 대한 經營성과 보고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加가상각비를 正산케도에 進入후에도 均衡손비처리 되게 하는 것(正액법)이 타당하리라 본다.

(3) 상각액과 세법上문제 - 現행법인세법 第51조(특별상각) 1항1호에 特別감가상각 대상업종과 高價자산을 열거하고 있는 바, 正유사 입장으로는 構築物이 該 대상에서 빠져 있어 여기에 문제가 있다. 正유사는 기계장치 못지 않게 구축물로 분리되는 貯油탱크, 파이프라인, Marine Terminal과 Loading /Unloading Facilities, 기타 同 부대시설이 該 기능과 취득가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하는데 反하여 現행법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은 大 모순이다. 他 제조업에 사용되는 機械설비와 正유사 구축物은 該 기능이나 가동시간面에서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관계당국과 協議 조속히 補完되어 稅務上의 마찰을 해소해야 한다.

#### 4. Usance 이자 및 Term Charge 計定 分類문제

(1) Usance利子는 原料료비(원유인 경우)의 부대 費用으로 본다면 原料비(Crude Purchase Cost)로 분류되고(기업회계기준 69조3항) Banker 나 Shipper가 公여하는 여신에 對한 지급이자로 보면 金용비, 즉 營業外비용의 支給利子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81조/항)

Term Charge 또한 L/C개설시의 Banking Process에 發生하는 Banking Charges로 보느냐(부대비) 아니면 은행의 納因(Arrangement)에 의한 支

급보증성격(金용비)으로 보느냐에 따라 詮해가 상 이할 수 있다.

(2) 一般의인 通說과 現任의Practice는 이자로 보 고 있으며, 外國에서도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本 人 역시 Usance利子는 수입Charge에 반드시 필수 的으로 發生하는 것이 아니고 Term Charge도 L/C의 有效期間 長短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原料구입비(Landed Cost)의 Cost Factors로 보기가 어려우 며, Usance이자는 通常적으로 여신자의 신용公여 Acceptance日 이후 30일내로 지불되므로 当期비용 으로 該 때에 損費處理하므로써 正유사의 어려운 流動性 사정을 表出하여 對外 弘報에도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同자부의 油價산정시 費用 Grouping에 도 金용비로 분류됨은 각각 利子 및 보증료 성격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 5. 石油事業基金의 적용계정분류

(1) 基金을 Landed Cost의 한 구성Factor로 본다면, 原料비(Crude Purchase Cost)로 분류되어야 하고, 하나의 정부부문 비용의 公課金이나 課徵金으로 본다면 直·間接費中의 제세공과금이나 또 는 營業外 費用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2) 基金은 該 性格上 基金징수率의 상하 조절과 면 제로 尤가의 安定을 위한 가격조절 내지 소비지 正 제주여의 보호에 있으므로 이는 매입原料비에 직접 計上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基金에 의한 損失補填이 확정되 거나, 지급될시에 當該보전율도에 해당하는 計定(원가계정)을 前後에서나 보전액만큼-(minus) 표기로 借込조정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營業外수익(貸込) 처리할 수 있는 바, 이것도 통일화의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實例로 봐서 회계年度가 넘어서 또는 發生으로 부터 상당기간 경과후 보전될 때가 있었는데 期間概念인 손익계산 서에 소급 또는 更定處理함에 애로점이 많이 있었 다. 그렇다고 正유사가 未確定액을 미리 未受金(A/C Receivable)이나 未收收益處理를 할 수도 없 는 처지이다.

#### 6.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자가소모 原料(제조공정 Loss)의 회계처리

정유사에 따라 별도항목으로 제조원가 보고서에表記하거나, 壓縮分介로 표시되지 않거나, 아니면 별도差減 표시 방법 등이 있는바 어떤 형태이든 原價계산 總額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것도 정유사간 통일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 7. 原油, 제품의 羅列 순서의 통일화

정유사의 일상적인 Paper Working 에 이것만큼 많이 쓰는 어휘나 表類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순서가 정유사내부 部署別, 정유사間, 동자부내의 각 용도에 따라 그 순서가 천태 만상이다. 예컨대 原油를 맨 먼저 쓰고, Premium Gasoline 으로 시작해서 Butane 으로 끝나는 수도 있고, Propane 에서 출발하여 아스팔트, 원유로 羅列하는 경우도 많으며, 같은 유종이라도 HS (고유황), LS (저유황) 순서가 十人十色이며, 벵커 A, B, C의 表記순서 역시 어지럽도록 무질서하다.

配列방법에는 Distillation Tower 의 위로부터 뽑아내는 유종 순서에 따라야 한다는 說도 있으나, 제조유종의 多樣化와 앞으로 LNG, NGL 등이 수록될 수 있으므로 現行 法定月間보고서인 생산 및 소비실적보고서상의 배열순서에 따라 통일화하는 것이 좋겠다. 사무능률화와 EDPS 化를 위하여 하루속히 통일화되어야 한다.

## 8. 油價算定時의 精製費 細分항목과 배열순서

(1) 동자부의 유가산정표류를 보면, 原油費, 金融費, 精製費(調整事項과 投資報酬 포함)로 크게 三分하고, 精製費를 비용성질에 따라 다시 細分하는 바, 구분 細目과 순서가 수시로 변환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유사가 제출한 기초자료(Raw Data) 와의 Cross Checking과 Matching이 용이치 못하고, Plus 計數와 Minus 計數 및 조정 計數가 무질서하게 混成되어 解讀하기가 難澁하다.

물론 행정관례와 必要性 및 官主導型이라는 현실의 여건때문에 업자가 이래라 저래라 云云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細分항목과 배열순서는 통일성과 一貫성이 特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구나 앞으로 民間自律의 油價策定을 유도하고 가격

심사기준을 制定해야 할 처지이므로 비용항목의 배열기준 定立이 더욱 요망되는 것이다.

(2) 현재 계기된 비용 細目을 분석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 즉 販賣管理費와 輸送貯油, 利子 및 換差損과 營業外費用 등의 表現은 중복해석이 가능하고, 투자보수를 정제비에 合算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등에 처하여 그 표현방식과 Grouping 에도 통일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 9. 損益의 認識과 歸屬年度문제

(1) 精油社는 石油事業法의 규정에 따라 1.12 換差補填 기준價차액보전, 多辺化보전 등을 수차례 받아 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告示형태로 하여 비용(추가부담포함)의 원인발생이나 이익실현 會計年度를 지나서 다음 년도에 가서야 確定發表됨으로써 정유사는 손익의 귀속년도 문제와 결산마감에 사실상 진통을 겪어 왔다. 기업회계기준에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源泉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收益항목과 이와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対応表示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實務上 企業會計의 손실은 發生時點, 收益은 實現時點에서 Bookkeeping 하는 것이 통례다. 동자부 告示에 귀속년도에 관한 明示的 特記조항이 없는 한, 各社는 당해사의 회계처리기준이나 利害得失을 비교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2) 세무회계는 債權, 債務의 確定時點이 손익의 귀속년도로 보고 있다. 정부의 고시는 行政行為上 公定性, 不可爭性, 不可變性, 實効性의 特質을 가지므로 告示의 효력發生時點에 정유사는 基金으로부터 보전을 받든, 앞으로의 지불금( Payable Fund)에서 상쇄 차감하는 債權은 일단 확정된 셈이다. 따라서 정유사는 告示上 별도의 特記조항이 없는 限, 고시 발표일이나 효력발생시점이 屬하는 會計년도에 손익처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만 會計年度(事業年度)를 넘겨서 고시가 발표됐더라도 기업회계상 發生년도에 손익으로 앞당겨 귀속처리하고, 이에 따라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미리 稅金내는 것을 세무당국은 굳이 是否認하지는 않을 것이다.

(4) 租稅減免의 혜택有無, 課標算定의 수준결정(Taxable Base), 公開法人의 배당문제, 合作先의

投資조건, 신규借款도입이나 合作先물색 등의 各社別 사정과 利害得失로 인해서 기금보전分の 귀속 年도를 일률적으로 통일化하자는 것은 도리어 正 社間의 결속을 깨고 經營의 獨自性을 沮害할 可 能성도 크지만, 反面에 各社自律은 손익의 对比分 析과 세무당국의 調查 등으로 否의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Ⅲ. 精油社 黒字示顯에 對한 認識 批判

(1) 우리는 보통 순이익을 파악, 계산하는 方法으로 (가) 1會計기간 中の 총수익에서 총비용(법인세포함)을 差減한 差額을 순이익이라고 하고 企業會計 기준은 該 發生過程에 따라 賣出總利益(Gross Profit), 營業利益(Operating Income), 經常利益(Ordinary Income), 法人稅차감前純利益 Income Before Taxes), 總当期純利益(Net Income)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나) 또 하나의 方法은 간단하게 期末資本에서 期初資本을 뺀 差額이 플러스이면 순이익, 마이너스면 순 損失로하는 計算方法이 있다.

(2) 기업이 一 營業期間中 營業을 해서 순이익을 示顯했다고 할 때, 우리는 該 純이익의 意義와 役割, 기능에 對하여 教科書式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즉 ① 이익發生有無와 該 수준(크기)때문에 자유경제체제下에서 발생가능한 經濟의 無秩序와 需給不均衡이 조화롭게 조정되고 운영된다. ② 기업의 目的達成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다 ③ 企業을 永 續시킨다. 따라서 기업가가 企業을 유지·존속시키기 위한 必要最小限 이익을 내지 못하면 이는 道德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國內재벌某氏曰)

(3) 정유사가 赤字에 시달리다 어찌다 흑자가 나서 決算공고나 稅務당국의 納稅実績순위가 紙上報 道되던 言論은 물론 온 國民이 신경질적 과잉반응을 보이는 該 現實이다. 言必稱 정부는 소비자의 出血로 正유사가 메돈을 벌도록 감싸고 있다느니, 獨点기업으로 땅질고 헤엄치기 장사라느니, 外國 메이저와 손잡고 막대한 시설과 資金力으로 市場을 左之右之하며 眼下無人格으로 군림한다...등등, 이것은 正유사의 속사정을 일반대중이나 유관기관에 제대로 납득할 수 있도록 P. R. 하지 못한 소이도 있지만, 사실은 精油産業이 잠재하고 있는 문제 즉,

國內外 에너지시장의 不確美性과 위험, 에너지 수 요 패턴의 變化에 따른 시설투자,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에너지 代替, 치열한 경쟁과 급변하는 經 濟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온갖 企業活動의 시행착 오 등을-이런 것들의 支出이나 費用發生이 現時點에 서는 비록 Realize 안됐다 하더라도-앞으로 불원 간 부담이 될 특정 目的을 위한 준비로써 추정한 금액을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써 앞당겨 처리하 지 못하므로써 結果적으로 장래의 대비가 소홀한 채 外見上 당기순이익의 계수만 화려하게 示顯시키 고 있기 때문이다.

(3)-1 正유산업의 구조개편을 爲한 向后的 막대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비 지출을 대비하는 것이 決算后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積立金の 성격으로 볼 것 이나, 아니면 장래를 대비한 現時點의 비용처리를 가능케 하는 充當金(Reserve, Allowance)으로 볼 것이나 하는 것은 논리상 또는 實定法上 많은 논란 을 가져올 것이다.

(3)-2 本人은 本稿에서 다만 다음 사항에 초점을 두고 이를 評價性 및 負債性 充當金으로 看做, 解析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한다.

가. 正유공장을 구성하는 거대한 장치 시설 등은 석유자원의 有限性, 원유가격의 不定安으로 인한 他에너지와의 가격경쟁성상실, 대체에너지 개발로 급격한 석유 의존도 감축, 석유의 資源 내셔널리즘 등의 사유로해서 관계稅法上 인정하는 Service Year 과는 관계없이 조만간 Scrap 이 되고, 結果 的으로 하나의 痼疾 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現在에서 미리 評價(Valuation) 하여 충분히 對備하고(일종의 Reserve for Self-Insurance 개념 으로)

나. 구조개편-예컨대 석탄액화나 기화장치 新 設, 중질유 분해시설 新設時 막대한 資本의 支出 과 改·補修의 損費性 出血이 발생될 것이므로 이를 미리 負債性 Liabilities 損費로 추계하고

다. 새로운 에너지 資源의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 되는 시행착오나 성공여부의 위험을 담보키 위하여 미리 오늘의 正유산업 흑자의 決算前 一部를 Re- serve 하자는 것이다.

이상의 發想은 이론상 많은 무리와 모순이 있고 實定法上 損費處理가 허용되지 않겠지만, 我田引水 格으로 한갓 전개할 뿐이다. 그러나 수출업계의 해

외시장 개척준비금이나 건설업계의 工事損失충당금, 瑕疵보수충당금 등도 따지고 보면 이상의 論旨과 50步100步라고 하겠다. 다만 官民一體로 노력(?)하여 稅法에 반영치 못한 차이뿐이다.

(3)-3 精油業界가 당면한 절박한 充當金처리 対象 프로젝트를 대강 열거한다면- 備蓄事業 充當金 (Stock Filing Allowance), 構造改編充當金 (Facilities Reformation Allowance), 에너지 資源開發 充當金 (Energy Resources R/D Allowance) 순으로 仮称分類하고 이하 이의 費用處理를 概述한다.

西歐선진국의 大企業들은 종래의 結算 概念, 즉

「投資에 대한 当然한 保証」의 次元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 環境, 情報, 정치, 道德관계의 Factors 까지도 結算 개념에 포함시켜 이를 각각 수치로 換算- 經營목표를 설정하여 經濟的 目標과 經濟外的 目標을 상호 관련시켜 공동 효과를 동시에 파악케 하고 장래를 분명히 조정할 수 있도록 結算표류를 만든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에는 不及하더라도 장래에 확실히 到來할 거대한 경제적 시련을 현시점의 재무제표에 미리 반영하는 노력과 슬기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 區 分        | 對 象   | 充 當 金 산 출   | 分 介                        |             | 備 考 |
|------------|---|---|----------------------------|-------------|-----|
|            |   |   | Dr.                        | Cr.         |     |
| 1. 비축사업충당금 | 비축시설 신증설비<br>비축재고 구입 및 유지보수비<br>해외선물換시장 참여 손실<br>예상<br>국내 공개시장조작 손실예상   | ① 기말 Inventory 가액의 일정률 또는<br>② 정상재고 초과분 Inventory 가액의 일정률 | 제조경비중<br>비축비(경비)           | 비축사업<br>충당금 |     |
| 2. 구조개편충당금 | 탈황시설, Cracking 시설<br>他석유화학개편시설(BTX등)<br>석탄액화시설과 Gasfication<br>시설. 기타 정유산업 구조개<br>편을 위한 Revamping                                 | ① 每期 매출액<br>의 일정률이나<br>② 제조비의 일<br>정률                     | 제조경비중<br>정유산업구조<br>개편비(경비) | 구조개편<br>충당금 | ①   |
| 3. 자원개발충당금 | 海外油田, Gas田 개발탐사비,<br>석탄 또는 우라늄 개발탐사비,<br>原子力, 風力, 地熱, 潮力, 태양<br>열개발, Photovoltaic (光전지),<br>Tesla波, 기타 대체에너지 개<br>발 Technology 비용 | 每期 원유 및 제<br>품 수입액의 일<br>정률                               | 제조경비중<br>자원개발비<br>(경비)     | 자원개발<br>충당금 |     |

#### IV. 맺는 말

결국 정유산업은 머지않아 鐵道産業과 같이 斜陽  
化가 필연적이고 Majors의 위력은 死滅한 恐動의  
존재로 轉落되고 말것이다. (The 3rd Wave By  
Albin Toffler)

現今의 여러가지 어려운 제약과 여건하에서라도  
우리 정유 5社는

- 정유사 고유의 公同회계 事案은 이를 통일기준으

로 회계처리하고,

- 현재의 이익개념의 해석과 숫자를 읽는 視野를  
달리해야 하며, 미래의 綜合에너지산업으로 전환  
키 위한 健實한 재무구조를 다지기 위해서 다각  
적인 회계처리 연구가 뒤따라야 하고,

- 國民과 政府기관이 정유사 재무제표를 보는 批判  
的 자세를 명쾌히 拂拭시키고 신뢰와 이해를 보  
다 敦厚히 하기 위한 하나의 方策을 도모함에 있  
어 一助가 되었으면 하는 주책없는 素望이다. \*